

미래 세대 위한 포교프로그램 공모 포교원, 8월 14일까지 접수

포교원이 미래세대 포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포교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사찰 청소년 법회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탈피하고자 어린이·청소년 및 대학생 포교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공모전을 8월 14일까지 연다.

포교단체 및 신도등록을 필한 자, 어린이청소년 포교분야 활동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 모집 분야는 △포교원 정책 과제물 설정 △지역 사찰 청소년 포교 활성화 △청소년 기구에서 활용 가능한 포교 방안 및 프로그램 △지역 전법에 맞는 청소년 포교 사업 등이다.

포교원은 "미래세대의 향후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힘이다. 이들을 위한 포교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선정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은 현장에 직접 보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우수작은 대상 1명 300만원, 최우수상 2명 200만원, 우수상 3명 100만원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응모 기간은 6월 15일~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및 내방 접수 가능하며 양식은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박익름 기자**

세계7대명상대전 연기

메르스 여파... 내년 2월 개최

메르스 사태로 불교계 행사가 잇따라 연기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7월 18일~25일 강원도 정선 하이리조트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등에서 개최 예정이던 세계7대성자명상대전도 내년 2월로 지연을 결정했다.

세계7대성자명상대전조직위원회(위원장 각산, 이하 명상대전조직위)는 6월 22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인한 행사일정 변경을 공식 발표했다.

명상대전조직위는 "메르스가 국가적 사태가 되며 대규모 합숙 행사에 대한 해외로부터 우려가 지속되었다. 국제적 대규모 행사 개최는 곧 국가적 안전문제를 직결되기에 논의 끝에 행사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어렵게 준비했던 행사가 지연된 만큼 더욱 내실 있고 알찬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행사는 내년 2월 중 열릴 예정이며, 등록자들은 2016년 2월 행사로 자동 등록 연장된다. 환불도 가능하다.

문의 (02)451-0203 **박익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교계 단체 법인 전환 잇달아... 활동 범위 넓어져

교사불자연합·병불련 등 교계 단체 법인 출범 활성화

불교계 활발한 신행·포교를 이끌던 단체들의 대사회적 활동을 위한 법인 전환이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법인 설립 후 대내외적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 활동 스펙트럼을 넓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오는 7월 경 사단법인 등록 완료 후 창립총회 법회를 앞두고 있다.

우선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이경훈, 이하 교사불자연합)는 5월 13일 경상남도 청오로부터 사단법인단체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 지금까지 비영리단체로 활동하며 느꼈던 제약을 떨치고 법인체로 청소년 포교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강영철 명예회장은 "그동안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명의로 직무연수·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는데 비로소 자체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사단법인체로서 교사불자연합이 개발한 프로그램 본연의 성격을 잘 살리고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명예회장에 따르면 단체가 법인화된 것으로 교직원 연수 사업과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 관련 정부 부처에 직접 공모 신청이 가능해진다. 강 명예회장은 "포교

램 직접 공모는 단체의 공신력을 향상시켜 준다"며 "이에 따라 교사불자연합은 내년 문화관광부 및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 인성교육·문화재 보호사업·민족전문문화사업 등 프로그램을 직접 공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사불자연합은 오는 7월 24~26일 김제 금산사에서 전국수련회를 갖고 사단법인 출범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진섭, 이하 병불련)는 7월 경 행정자치부에 사단법인 등록 후 의료포교 활성화 도모에 나선다. 이에 앞서 6월 25일에는 서울 견지동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사단법인출범총회를 열었다. 이날 병불련은 "사회 양극화 구도 속에 의료 상업화로 가속화되며 의료 수혜조차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더욱 늘고 있다"며 "사단법인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자비 나눔 및 불교계 사회적 역할 확대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기존 병불련의 불교적 사상을 이어받아 의료 봉사활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주적 의료구축에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이동숙 사무총장은 "4월 19일 안산 단원고 이주민센터서 불교계 최초로 의료봉사를 실시할 당시 이주민에 대한 열악한 의료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진섭)는 6월 25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사단법인출범총회를 열고 사단법인 출범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법인되면 정부에 직접 공모 신청 가능 단체의 공신력과 브랜드 파워 향상

조직 운영 체계화·투명성에 큰 도움

지원 상황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안산시에 온 집 거주 중인 이주민 2~3만 명 중 6~70%는 불법체류자로, 이들은 의료 지원 시스템서 배제되어 있다. 법인 설립 후 소외계층에 대해 보다 선진적이고 질적인 의료 봉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찍이 사단법인 출범 후 견고한 기

반을 다져 불교계 안팎으로 활발한 신행·포교를 이끌고 있는 곳이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는 1998년 6월 문화관광부 주무관청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1962년 당시 공보부에 일반 단체로 등록된 후 98년 공식 법인체로 출범해 현재 서울시지자체 관리를 받고 있다. 대불청 전준호 회장은 "법인화 후 총회 개최, 등기이사 선임, 정관 채택 등 의무적인 공식 절차로 인해 단체 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해 됐다"면서 "주무부처가 있음으로 해서 단체 공신력을 얻을 수 있고 활동력도 높일 수 있는 장점

이 있다"고 말했다. 대불청은 현재 문화관광부지원으로 매년 전국민해백일장, 전국불교청년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사)지혜로운 여성은 2007년 1월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산하사단법인단체인 지혜로운 여성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설립됐다. 한주영 사무국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은 문화관광부 소속 종교 단체로 등록돼 있다. 지혜로운 여성은 종교 단체로서 한계를 벗어나 좀 더 대중적 활동 역량을 넓히기 위해 창설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한 사무국장은 사단법인 출범 후 여성가족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일반적 정보 공유가 수월해진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여성 단체로 발돋움 하며 종교 단체로 한정돼 있던 활동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이 폭넓게 확대된 것이다. 실제로 사단법인 출범 후 성남시고등동복지회관 위탁 운영을 맡게 되며 종교계를 벗어난 활동 범위를 구축하게 됐다. 이밖에도 지혜로운 여성은 사단법인 출범 바로 다음 해인 2008년 9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지원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시작했으며, 2010년 7월 서울 시여성발전기금 지원으로 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 및 강사양성 사업 '내 생의 보날'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박익름 기자**

어린이 배움터 '미항사 한문학당'

7월 26일~8월 5일 2차례 진행... 어른 위한 템플스테이도

16년 전통을 자랑하는 어린이 한문 학당이 여름 방학을 맞아 올해도 다시 개설된다. 해남 미항사(주지 금강)는 7월 26일~8월 2일, 8월 5일~8월 12일 2차례에 걸쳐 어린이 템플스테이 '미항사 한문학당'을 연다. 2000년 7월 처음 시작한 미항사 한문 학당은 올해 16년 차로 한문교육·문화 체험·산사체험 등 교육한다.

한문 교육은 주지 <수심보경>을 교재로 한다. <수심보경>은 사자소학과 법구경, 명심보감 등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는 내용을 발췌해 주지 금강 스님이 직접 편집한 책이다. 미항사는 "한문 경향이 없는 학생도 쉽게 공부할 수 있으며, 문장 해석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혼자서 한문 학습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문화 체험은 숲 체험, 별자리 탐방, 탁본 체험, 팥골 마을 바다체험, 달마



미항사 한문 학당이 올해 16년 차를 맞았다. 여름 방학을 맞아 7월 26일~8월 2일과 8월 5일~12일 2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2014년 한문 학당에 참여한 아이들 모습.

산 산행 등으로 구성된다. 또 산사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1300년 미항사 역사와 산사 예절, 발우 공양 및 다도 등을 학습한다.

교수사에는 주지 금강 스님을 비롯한 동국대학교대학원 무진 스님, 중앙승가대학교 법선 스님 등이 나선다. 초등학교 고학년생(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문 학당은 45명 정원으로 7월 15일 접수 마감한다.

한편 2013년과 2014년 템플스테이 최

우수사찰로 선정된 미항사는 바쁜 삶에 지친 현대인을 위한 참선집중수행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도 진행한다.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는 참사람의 향기는 7월 11일~18일과 8월 15일~22일 열릴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간화선 참선·다도·묵언·오후 불식·수행문답 등으로 구성된다. 문의 (061)533-3521 **박익름 기자**

"한국불교 중흥, 교육이 답이다"

경주 기림사, 교육도량 선포

경주 기림사(주지 덕민)가 6월 19일 불국총림유원·불국경강학림 선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기림사 불국총림유원·불국경강학림은 감사진과 교육 구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내년 초 문을 연다.

기림사 주지 덕민 스님은 "화엄경과 금강경을 녹아내는 선종의 씨앗을 이 도량에 되살리기 위해 불국총림유원·불국경강학림을 새롭게 열게 됐다"며 "불국사 유원과 강원의 힘찬 시작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유원과 금강

학림의 개설은 옛 불교의 영광을 되찾는 단초를 세우는 것과 같다"며 수행자의 청정심을 지켜나갈 유원의 탄생을 축하했다.

현판식에 이어 기림사는 불국사·석굴암·분황사·청계사·불영사·보경사·오여사 등 각 사찰과 신도들이 기증한 쌀 1만kg을 경주시 및 BTN, 불교TV 등에 전달했다.

한편 현판식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을 비롯한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기림사 주지 덕민 스님, 최양식 경주시장 등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경주 기림사(주지 덕민)가 6월 19일 불국총림유원·불국경강학림 선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략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7개월)	사물(목탁, 오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7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7월 中

◆개강일시 : 2015년 7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7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